

16번째 환자 감염 '미스터리'...태국? 공항? 국내?

보건당국, 16번 환자 중국 아닌 태국 다녀와
태국내 확진자·공항·국내 등 경로 많아져
앞으로 제3국발 입국 경계심 높아질수밖에

태국 여행을 다녀온 16번째 환자(42·여)가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확진 판정을 받아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보건당국이 16번 환자가 다녀온 국가가 중국이 아닌 태국인 것으로 4일 오전 동선을 밝히면서 감염원 파악이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국내 확진자들은 주로 중국 우한시를 거쳐 입국했거나, 국내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감염원 및 접촉자 파악이 원활했다.

하지만 16번 환자는 태국 내 확진자 접촉이나 공항 입출입 과정, 국내 확진자 접촉 등 감염 가능 경로가 훨씬 많아진다.
만약 태국에서 감염됐다면 16번 환자는 12번째 환자(48·중국인 남성)에 이은 두 번째 제3국 감염 사례가 된다.
앞으로 중국뿐만이 아닌 제3국 발 입국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현재까지 태국내 확진자 수는 우리나라보다 많은 19명으로 그중 7명이 완치됐다.
앞서 12번 환자도 일본에서 건

너와 국내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 환자는 앞서 일본 확진자와 접촉했던 것으로 당국은 파악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16번째 환자는 태국 여행 후 1월 19일 입국했다. 이후 같은 달 25일 저녁부터 오한 등 증상이 있어 2월 2일까지 치료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았다.
이에 이 환자는 3일 전남대학교 병원에 내원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배제를 위해 격리조치된 후 광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검사 결과 4일 오전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현재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가 진행 중으로 추가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는 이날 16번 환자가 추가 발생하면서 총 16명으로 늘었다.



시민들이 4일 오전 16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격리 중인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에 들어 서고 있다. 16번째 환자(42·여)는 앞서 태국 여행을 다녀온 뒤 이날 오전 바이러스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 환자는 중국 우한시가 아닌 제3국에서 입국해 확진을 받은 두 번째 사례가 됐다.

'16번 확진자' 무안공항 입국...접촉자는 몇이나?

역학조사팀 이동경로 파악
공항 활성화 찬물 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6번째 확진환자가 지난 1월 19일 입국한 것으로 알려진 무안국제공항의 4일 내부 모습. 최근 중국 항공편 취소 등으로 인해 더욱 쓸쓸한 모습이다.

"이제 막 공항이 활성화되려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또다시 침체를 맞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4일 확인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6번째 확진환자가 지난달 19일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무안 공항은 침통한 분위기다.
기차역이나 항공편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환자 입국까지 확인돼 공항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닌지 우려되고 있다.
4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광주에 거주하는 A씨(42·여)가 국내 16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환자로 확인됐다.
A씨는 폐 관련 기저질환자로 태국 여행 후 1월19일 입국했고 이어 25일부터 오한 등 증상이 있어 2월3일 전남대병원에 내원, 다음날 양성으로 최종 판정됐다.
또한 A씨는 동행자 5명과 태국 방콕 여행을 마치고 제주항공

을 이용해 무안공항으로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안국제공항에도 이날 오후 역학조사팀을 보내 A씨와 같은 비행기를 탄 승객 명단을 확보하고 공항내 CCTV 확인 등을 통해 접촉자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다.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 관계자는 "우리도 역학조사팀이 내려온다는 소식만 전달받았고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며 "조금씩 공항 이용객이 늘고 있는 상태에서 날벼락을 맞은 느낌이다"고 침울해 했다.

무안국제공항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됨에 따라 국제선의 경우 지난달 29일부터 제주항공과 중국 사천항공, 동방항공의 중국 산야와 장가계, 상해 등 중국 노선을 전부 중단했다.
무안공항에 상주하는 한 사설업체 직원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승객이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이곳을 이용한 승객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서 "혹시나 제가 접촉대상자인지도 걱정된다"고 말했다.

16번째 확진자 개인정보 무차별 유포에 불안감 급속확산

비슷한 시기에 해당 병원 다녀간 환자들 불안불안
가족 다닌 회사 등 자료 확산...자녀 어린이집 폐쇄

광주에서 16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지역사회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4일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광주에 거주하는 A씨(42·여)가 신종 코로나 확진환자로 확인됐다.
해당 환자가 내원한 비슷한 시기에 전남대병원을 찾았던 환자들은 행여 자신도 신종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았는지 불안해하고 있다.
시민 박모씨는 "16번째 확진자가 전남대병원 응급실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전남대병원을 찾았던 지인이 매우 불안해 하

고 있다"고 전했다.
16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광산구의 한 병원도 이날 곧바로 임시폐쇄 조치됐지만 해당 병원을 찾을 예정이었던 환자들은 통원치료를 미루고 있다.
전모씨도 "부모님께서 내일(5일) 광산구에 지리한 해당 병원을 가야하는 날인데 가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질병당국의 강력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확진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불안감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인터넷과 SNS 등에는 '신종코

로나바이러스 확진환자 발생보고'라는 문건이 게시되는 등 해당 환자의 가족들과 접촉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학교와 어린이집, 회사 등의 이름이 무차별적으로 퍼지고 있다.
16번째 확진환자의 자녀가 다닌 것으로 확인된 어린이집 역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자치구는 어린이집 임시폐쇄에 나섰다.
광주 광산구 관계자는 "오늘 중으로 어린이집을 폐쇄할 예정이며 최대 14일간이 될 것"이라며 "함께 다녔던 아동들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역학조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건당국은 16번째 확진 환자와 동반여행을 다녀온 친모가 전남 나주에 거주 중인 것을 확인하고 긴급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경찰, '16번째 확진자' 개인정보 유출 수사...광주시 수사의뢰

16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SNS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출된 가운데 경찰이 유출 경위 등 수사에 나선다.
4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12시50분쯤 16번째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보고서의 유출 경위를 조사해 달

라는 광주시 수사의뢰를 받았다.
이날 오전부터 모 포털사이트 카페, 트위터, 카카오톡 등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환자 발생보고'라는 제목의 문서가 광범위하게 유포됐다.
16번째 확진자가 거주하는 자치구에서 광주시에 보고하기 위해 만든 이 문서에는 확진환자의 인

적사항, 거주지, 증상, 동거인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
가족들의 나이와 직업, 재학 중인 학교 이름도 적혀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출사실을 확인했고, 공무원 비밀누설, 감염병 관리법 위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1

NDP 인쇄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안길 93-10
TEL: 062)943-0135 ~ 6
FAX: 062)943-0134